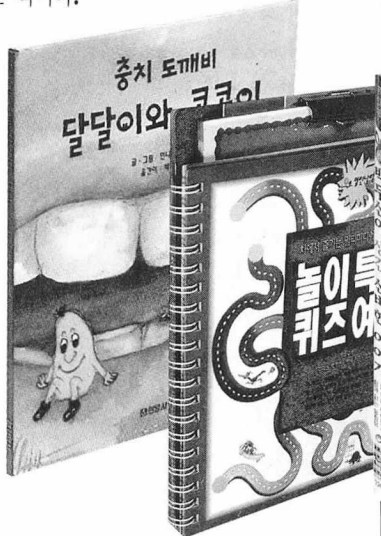


충치 도깨비 달달이와 콧콕이

안나 러셀만 글·그림 / 박희준 옮김
현암사 / B5변형 / 44면 / 4500원
충치균을 '달달이'와 '콧콕이'로 의인화시켜 왜 충치가 생기는지를 재미있게 그린 그림동화.

젓나마에 사는 달달이와 콧콕이는 단맛나는 음식을 창고에 수북이 쌓아두고 젓나 마을 전체를 충치마물로 만들려는 꿈에 부풀어 있는 충치도깨비다. 하지만 어느날 꼬마 경찰을 가득 태운 솔이 들어와 달달이와 콧콕이가 차곡차곡 모아 두었던 맛있는 음식을 모두 긁어간다. 이를 닦지 않는 어린이가 초코렛과 사탕을 마구 먹으면 충치균이 이를 부서뜨린다는 이야기.

이 동화는 어린이들이 양치질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이유없이 볼이 부어오르거나 이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미취학 아동과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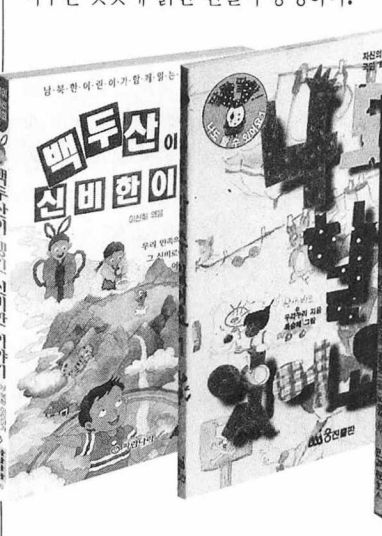


백두산이 생긴 신비한 이야기

이신희 엮음
파란나라 / A5신 / 218면 / 4500원
백두산 천지를 비롯하여 주위의 많은 봉우리와 폭포, 호수 등이 생겨난 배경을 전설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책.

먼저 백두산의 천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옛날 백두산에는 심술궂은 흉포의 횡포로 심한 가뭄이 든 때가 있었는데 백장수라는 장수가 가뭄을 막기 위해 100일 동안 지하수를 파는 바람에 생겼다고 한다. 백장수가 옥장천의 물을 마시면서 파낸 열여섯 삼분량의 흙더미는 지금의 16개 봉우리가 되었다. 여자가 옥장천에서 얼굴을 씻으면 눈부시게 아름다워진다. 전설도 전해온다.

백두산 천지에 있었다는 용궁, 옥황상제의 세자매가 내려와 목욕했다는 옥녀탕, 앞 못보는 어머니와 걷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총각에게 시집 온 삼신소녀 등 백두산 곳곳에 얽힌 전설이 풍성하다.



삼국유사 (전4권)

장득진 구성 / 김성한 그림
민족문화사 / A5신 / 158면 내외 / 각 4500원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를 국민학생 수준에 맞게 만화로 재구성한 책.

원전에 있는 내용에서 발췌한 이야기라 고대 신화와 전설, 고어, 지명의 기원, 사상 등에 얽힌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불교적인 색채가 짙다는 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개벽에서부터 삼한시대로 이어지는 내용중에 누에가 생겨난 배경을 말해주는 이야기도 있다. 삼한시대 한왕(韓王)은 적자의 목을 베어오는 장수를 부마로 삼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잘생긴 말 한마리가 적장의 목을 가져오자 그 약속을 취소하고 아예 말을 죽여버린다. 이에 슬픔을 못가누던 공주가 어느날 말가죽에 싸여 버려진다. 후에 말의 머리를 닦은 벌레가 그 가죽에 붙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누에다.



재미있는 과학퀴즈

사에키 마사토 지음 / 편집부 엮음
국민서관 / A5신 / 176면 / 4800원
지렁이는 뒤로 갈 수 있을까?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지렁이를 확대경으로 살펴보면 등과 옆구리에 작은 가시가 있어서 뒤로 갈 수 없다. 반면 땅 속에서는 이 가시를 흙에 걸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 책은 지렁이의 비밀뿐만 아니라 모기에 물리면 가려운 이유, 개는 색깔을 알 수 있을까, 방울뱀의 소리는 무엇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일까 등 갖가지 곤충과 동물들의 신비한 비밀을 밝혀낸다. 한편 차와 로켓, 망원경, 우주, 생활 속의 과학 등 누구나 과학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실험방법과 해설, 퀴즈를 수록했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사실들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관찰을 시도하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신비를 푸는 과학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



놀이 특급 퀴즈 여행

주디스 맥키번 외 구성 / 차현주 옮김
성인문화사 / 규외 / 48면 / 16,000원
교통체증으로 짜증나기 쉬운 여행길에서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여행용 액트북.

창밖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종류별로 찾아서 점수를 내는 '자동차 놀이'와 교통표지판을 이용한 '웃놀이' 등은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식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주사위와 고무말로 게임판에 있는 궁전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인도 주사위 놀이', 색실로 알록달록 팔찌를 만들거나 머리카락을 가늘고 길게 땅을 수 있는 이색적인 게임도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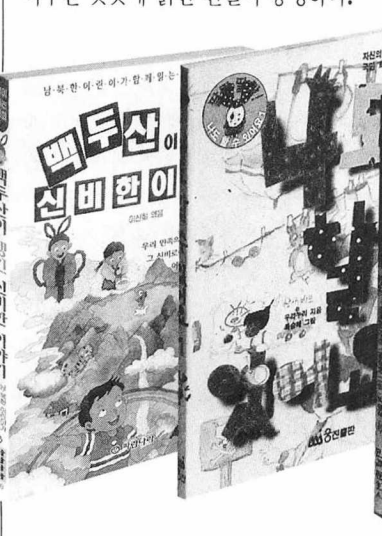
퍼즐, 수수께끼, 퀴즈 등을 푸는 데 필요한 실뜨기용 실 한개, 색실 6타래, 마커펜 6개, 게임용 고무말 8개, 주사위 2개가 부록.

나도 할 수 있어요 (1·2)

우리누리 지음 / 최승혜 그림
웅진출판 / B5변형 / 각 142면 / 각 4400원
국민학교 1~3학년에게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책.

주인공인 상민이와 상이는 각기 국민학교 3학년과 1학년. 어느날 갑자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는" 주인공들이 직접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해야 할 입장이 됐다. 이때 등장한 '방울이'는 이들에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일러주는 고마운 요정. 집보기, 학교 갈 준비하기, 방청소하기, 용돈기입장 쓰기, 우표 모으기, 계획서 작성하기, 엽서 쓰기 등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찬찬히 일러주면서 주인공들을 도와준다.

다른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풍부한 그림과 설명을 덧붙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어린이들에게 생활안내서로서 권해줄 만하다.



0~3세 유아의 그림지도

일본예술교육연구소 엮음 / 김윤옥 옮김
어린이들 / B5변형 / 168면 / 12,000원
영아(0세부터 만3세까지)들의 미술활동 지도자료집.

연령별 그림지도 계획안, 시간계획 및 실천 시나리오, 연간 미술지도 계획안, 영유아의 교육실천 사례 등이 주내용이다. 수록된 프로그램은 영아반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 수월하도록 세심하게 구성했다.

특히 유아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요구되는 팔, 손목, 손가락 활동의 분화를 도모하면서 아울러 집중력을 길러주는 기초단계를 중시하여 0세에는 쥐는 힘과 손조작의 힘을 키워주고, 1세에는 눈과 손의 협응을 몸에 익혀준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의도적인 손 움직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 마음으로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된다.



삐코와 함께하는 대통령을 찾아라

고보전 지음 / 김안식·정계향 그림
깊은사랑 / 규외 / 24면 / 6000원

그림판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제시한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내는 놀이 형태의 그림책. 계절별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를 택했으며 주요 등장인물은 '티코'라는 상상 인물과 현실 '대통령'이다. 이들은 동물원, 종합병원, 바닷가, 눈썰매장 등지를 즐겁게 다니면서 질서의식에 어긋나거나 환경문제에 위배되는 것들을 발견해 낸다.

화창한 3월 아침의 풍경은 출근 또는 등교하느라 바쁜 인물들을 그린 그림. 여기서는 자동차 매연에 숨막혀 하는 여자, 다른 차를 끌고 가는 차 등을 찾아내면서 혼탁한 교통환경을 실감한다.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그림을 보면서 좋은 취지로 설명해 준다면 더욱 재미있는 그림책이 될 듯하다.

